

줄기세포, 3차원 배양·재조합

# 미니장기로 맞춤형 치료 ‘활짝’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 학술대회**

세계 최초 학회, 한국서 열려  
독성·부작용 등 정확한 확인  
차세대 의료분야로 주목받아

차세대 생명공학기술로 각광받는, 오가노이드(미니장기) 연례학술대회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다.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유사체로, 신약의 동물 실험을 인체 장기로 대체해 약물의 독성과 효과, 부작용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어 차세대 의료 분야로 주목받는다.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연례학술대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오가노이드 연구의 현황을 공유하며, 차세대 난치병 치료기술로 주목받는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호 한국오가노이드학회 회장은 “오가노이드 연구·개발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환자 개인의 질병을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며 “세계 최초의 오가노이드



세계 첫 오가노이드 학회 창립 발기인 대회가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드 학회를 한국에서 창설하게 된 것은 굉장한 의미이며,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줄기세포 등의 연구를 한국이 선도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기술이 오가노이드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몸뚱’에서 약물반응을 실험 하더라도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관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약물과 질병에 대한 체내 반응을 더욱 확실히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경선 한국오가노이드학회 이사장은 “동물실험으로 확인한 약효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90% 틀리다”며 “인공장기 만들면 질병 치료에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줄기세포 시대에서 오가노이드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래 헬스케어는 오가노이드가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야스퍼 멀렌더 후브레히트 오가노이드 기술 연구소 박사는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체 장기와 가장 비슷한 세포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동물 실험에 국한됐던 과거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어 정밀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타카노리 타케베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급의료연구소 박사도 “우리는 오가노이드 약이 미래 헬스케어의 첨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oul.co.kr

# “보건복지, 중장기적 계획 필요”

**국회 지구촌 보건복지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이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을 초청해 ‘한국의 보건 의료,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이명수 위원장은 융합과 조화를 통해 세계를 평정한 창기즈칸의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 의료를 국가 첨단산

업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며 “현안에 급급하지 말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정책이 국민 삶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은 만큼, 어떤 분야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잘 준비된 보건복지 정책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 중 한 명으로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세경 기자



여성벤처협, 20주년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 가져

한국여성벤처협회는 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6일 ‘2018 여성벤처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강경애 아화골프 대표, 김다혜 올리브스톤 대표, 김보경 태양에스엠 대표, 류현숙 효성에어캡 대표, 서정원 티알테크놀러지 대표, 양윤옥 이트 대표, 우수명 아시아코치센터 대표, 이숙영 컴트리 대표, 이영옥 커리어스타 대표, 장경숙 영남엘리더리팅 대표, 최화자 국일안전 대표, 황승주 미주 대표가 여성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모범이 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 ‘시몬스 페이’로... 월 7만원에 6성급 호텔 침대를 안방으로

‘매달 6만9000원이면 6성급 호텔에 들어가는 시몬스 침대를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다.’

시몬스 침대가 불경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본사, 대리점,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순순환 동반성장’을 위해 7일 팔을 걷어붙였다.

200만~5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침대를 소비자들 36개월 무이자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수수료는 대리점이 아닌 본사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한국 시몬스는 국내 주요 카드사와 손잡고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본격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BC, 국민, 삼성, 현대, 하나, 농협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를 시몬스페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시몬스는 매장 규모나 매출 규모에 차등을 두지 않고 시몬스페이 운영대



시몬스가 ‘시몬스페이’를 통한 순순환 동반성장에 나선다. 모델들이 시몬스페이를 알리고 있다.

리점에 각각 올해 4·4분기(10~12월) 총 3000만원씩 특별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 배송비도 시몬스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이번 시몬스페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실제 6성급 호텔의 침대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 실제 시몬스페이로 제품을 구매(36개월 무이자 할부)하면 250만원

침대는 월 6만9000원, 350만원 침대는 월 9만7000원, 500만원 침대는 월 13만8000원씩 내면 된다.

매트리스와 프레임, 톱셋, 베딩까지 포함한 800만원대 침실 건적은 월 22만원대로 구성할 수 있다. 시몬스페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매장 리스트는 시몬스 침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JW중외제약 아토피치료제 임상1상 승인

가려움·염증 억제... 부작용도 낮아

JW중외제약이 레오파마에 기술수출한 JW1601 임상 시험이 본격 개시된다.

JW중외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혁신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JW1601’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IN D)을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JW1601’은 지난 8월 피부질환 치료 시장 글로벌 1위 기업인 덴마크 레오파마에 전임상 단계에서 총 4억200만 달러

(약 4500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이 후보물질은 히스타민 H4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면역세포의 활성화와 이동을 차단하고,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의 신호전달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

특히 항염증 효과 위주인 경쟁 개발제품과는 달리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동시에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로 평가된다. 또, H4 수용체에 높은 선택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작용 발현율도 현격하게 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에서 총 88명의 건강한 한국인과 코카시안(백인)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을 비롯해 약물의 효과, 생체 반응 등을 평가한다. JW중외제약은 2019년까지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레오파마는 2020년부터 글로벌 임상 2상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가 비뇨의학과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진료로 시작한다. 지난 2015년 11월 비뇨의학과 내 국내 유일의 인공방광센터로 개소한 이후 3년 만에 확장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은 7일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진행했다. 인공방광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 개소를 통해 방광암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국내 하나뿐인 인공방광수술 특화 센터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한다. 비뇨의학과·영상의학과·감염내과·병리과·외과 등 5개과 의료진의 협진으로 수술이 진행돼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가 높다.

수많은 수술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수술 시간이 8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줄고 신경·혈관 손상을 최소화해 출혈도 적은 ‘무(無)수혈’ 수술을 실현한다. 70대 환자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인공방광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공방광에 요관 카테터·콧줄 등 각종 관을 삽입하지 않고 수술 후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인공방광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긴데다 감염에 취약한 부분을 수술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해 인공방광 수술을 한 환자들이 나중에 신우신염 같은 합병증이 생겨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 고안한 수술법은 복막과 혈관 등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이세경 기자



문병원 이화의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동현 인공방광센터장(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인공방광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